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6호 [루게 제25775호] 주제 106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병진의 힘을 총폭발시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짓부 시고 사회주의승리봉에 주체의 붉은 당기를 힘차게 휘날리자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집회 진행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병진로선따라 주체의 령강국, 세계적 군사강국으로 비상히 강화된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걸맞은 미래의 단말마적발악이 정선병적인 광태에 이르러 온 나라 천만 군민의 치솟는 격분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세계제도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수십만의 무고한 생명을 순간에 앗아가는 원자탄투하도 서슴지 않은 날강도 미제는 반제자주의 성세, 사회주의강경보루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정권교체》와 《제도전복》을 위협하다 못해 우리 국가와 전체 인민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반인륜적인 전대미문의 미치광이나발까지 세상에 대고 뽐뿌연히 불어내고 있다.

우리의 자위적이며 장정당당한 핵무력 건설을 결코 물러미치지 않는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의 최고존엄과 국가의 존제 자체를 부정하고 조선인민의 절멸을 꾀하려는 미제야말로 인류사상 가장 뻔뻔스럽고 흉악한 광제, 자주와 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 인류와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이 행성에서 쓸어버려야 할 악마의 무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성명에 걸맞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미제가 최후발악할수록 우리 당이 선택한 핵무장강화의 길이 천만번 옳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천추의 한을 담아,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결코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야말 복수심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집회가 22일 조선혁명의 최고참보루인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장은 허장성세하며 분수없이 날뛰는 포악무도한 미국놈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강철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 당과 인민, 령사의 이름으로 이 땅에 무서운 핵참화를 불어부지 못해 안달이 난 악의 총본산 미제국주의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지구상에서 씨도 없이 죽탕처벌 될라는 적개



심과 열적의 의지로 세차게 뛰어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집회장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집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수용동지, 김정해동지, 리만경동지, 오수용동지, 김영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조연준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는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을 최봉해동지가 낭독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조연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영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파장 박영철이 연설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유엔총회에서 한 미국대통령이라는자의 연설과 관련하여 발표하신 력사적인 성명을 커다란 충격속에 접한 당중앙위원회의 전체 일꾼들은 지금 결사의 각오와 비장한 맹세를 가다듬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며 우리 국가를 《완전 파괴》하고 수천만 우리 인민을 전멸시키겠다는 미친 불행배의 천인공노할 꾀변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 집요하게 추구해온 미국놈들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사적압살야망을 단련하여 적라라하게 드러내놓고 온 세계앞에서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정예임을 스스로 자인한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무실이나 클럽장도 아닌 유엔 무대에서 주권국가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고 뽐내던 트럼프놈의 반인륜적인 정신병적광태는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중앙당일꾼들과 온 민족의 이름으로 이를 준엄히 단죄규탄하였다. 정치관 《아》자, 《가》자도 모르고 국가를 수천만의 자질은커녕 초보적인 외교적언사도 배우지 못한 이 늙다리야말로 도날드라는 이름그대로 확실히 결핍하면 화를 내는 미친놈이고 아무 타산도 없이 트럼프장을 마구 내던지는 문외한이 분명하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세계의 면전에서, 온 세상을 향해 게거품을 물고 내뱉은 천고미문의 악담집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이며 천만군민을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으로 촉발시키는 기록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세계는 온 행성에 무서운 핵참화들 불어부지 못해 안달이 난 미친 송냥이 트럼프놈의 망동을 두고 경악과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번 기회에 분수없이 날뛰는 미국놈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악의 총본산,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을 없애버리고 무성계노호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고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공공연히 해온 트럼프놈의 전대미문의 악담은 제국주의의 야성 미국을 전멸시킬수 있는 우리 국가의 막강한 위력을 반증해주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택한 길이 절대적으로 옳았고 끝까지 가야 할 길임을 명명백백히 확증해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오늘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언제든지 피복은 이발을 드러내고 우리 공화국에 전쟁을 강요해온 날강도 미제의 침략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병진로선을 제시한것이며 천만군민을 이끌어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을 완강히 돌파해온것이라는 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략적절단과 명철한 지휘밑에 지금까지 보여준 국가력무력의 모든 타격수단들뿐 아니라 아직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우리 시의 위대한 주체무기, 통일탄들을 백두산병기장에 차곡차곡 비축해놓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트럼프놈이 내뱉은 《절멸》이라는 피이한 낱말은 다름아닌 미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상징어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성명하신바와 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결코 늙다리 미치광이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받아낼것이며 수령의 부름따라 천만군민이 총결기하여 악의 제국을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려 반미대결전의 종국적승리를 장엄하게 안아올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대렬을 온전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고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충정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의 명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 가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령결사옹위에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원수들의 온갖 발악적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수령보위, 혁명보위성전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어일으키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포성을 일제히 드세치게 울려나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정치사상공세에 모든 력량과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천만이 당중앙의 부름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고 전민 항전대오에 일심단결의 사상과 굳합없는 공격정신, 원수격멸의 기상이 맥박치게 함으로써 적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완전제압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쫓는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다.》

연설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전체 일꾼들이 각각 일촉즉발의 위기상태로 치닫는 침에 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명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데 당조직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겠다고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당의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결사판철하도록 하며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령일하게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율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혁명의 붉은 총창으로 미제의 더러운 숨통을 끊어버리고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미결사전에 총결기하기 위한 인민무력성 군인집회 진행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완전과피》라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방탈을 함부로 짓어대며 오만무례하게 날뛰는 날강도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와 천백배의 보복열기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주체조선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고 어중이떠중이들과 야합하여 극악무도한 유언《제세결의》를 조작하다못해 온 누리에 강국의 위상을 떨쳐가는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꾀했던 전횡미치광이무리를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려는것이 천만장병들의 심장마다에 용양처럼 끓어넘치는 복수심이다.

혁명의 붉은 총창을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철천지원수 미제와의 판가리결산을 위해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군력을 총폭발시켜 아메리카식인종무리의 마지막씨종자까지 쟁그리 박멸해버릴렬적의 의지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미결사전에 총결기하기 위한 인민무력성 군인집회가 22일 에 진행되었다.

집회장에는 2,500만의 우리 공화국 인구를 다 전멸시켰겠다는 히스테리



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북군대장 박영식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일군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는 《백두산봉대는 대답하라!》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황병서동지가 전달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 접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승냥이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령도따라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을 백두산봉대에서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3 번 으 로 계 속

인 집략전쟁광기를 부러대는 미제의 더러운 숨통을 끊어버리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자야만 참가자들의 무적필승의 기상이 세차게 융솟을치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집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집회장에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백두산봉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총폭발시켜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

위대한 병진의 힘을 총폭발시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짓부시고 사회주의승리봉에 주체의 붉은 당기를 힘차게 휘날리자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집회 진행

1 번 으 로 계 속

전시환경에 대비한 사상사업체계, 선전선동사업체계를 더욱 빈틈없이 완성하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전쟁관점과 투철한 반미반미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본때있게 틀어메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이 야만적인 제재봉쇄를 무제한하게 고안해낼수록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해나가는 주체적국방공업의 자강력은 무한대로 증대될것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분별없는 위협에 직착할수록 천만

군민의 보복의지와 결심은 더욱 확고해 질것이라고 말하였다.

군수공업부문과 국방과학연구부문에 항일의 연길복판정신, 전화의 군사혁명정신이 더욱 세차게 나타치게 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명령을 즉시집수, 즉시집행하는 강철같은 규율을 확립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미 천명하신대로 트럼프놈을 비롯한 미국것들이 더는 군사적타격이요, 《완전과피》요 하면서 잡소리를 치지 못하게 우리 식의 전략무기,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 조국통일대진군명령을 기다리는 전선의 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

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 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뼈에 새기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박차를 가하여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해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감히 우리 공화국의 《완전과피》를 떠들어대고 악랄한 반공화국제재봉쇄에 매달릴수록 내각과성, 중앙기관들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통장훈을 부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주체화, 현대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실제적인 사업성과, 끈적끈적한 로력적열매를 마련함으로써 날강도 미제의 정수리에 무서운 철추를 내리며 다음해에 맞게 되는 어머니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향하여 폭풍쳐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명예를 결코 미국놈들을 지구상에서 쫓아내지 못해 버리기 위한

성전의 제1선에서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의 지휘성원으로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겠다는것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앞에 엄숙히 맹세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명도를 총정리로 받들고 위대한 병진의 힘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 승리봉에 주체의 붉은 당기를 높이 휘날려 갈 혁명적신념이 맥박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독란이 되자!》,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래를 보여주자!》, 《경제건설과 혁명적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책동을 자력갱생의 대고조폭풍으로

단호히 쳐갈기자!》 등의 구호들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집회는 《총성의 한길로 가고자리라!》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집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단호한 결심과 철의 의지를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을 총결기시켜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용대한 목표를 반드시 실현함으로써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의 붉은 총창으로 미제의 더러운 숨통을 끊어버리고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미결사전에 총결기하기 위한 인민무력성 군인집회 진행

2 면에서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은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지판이나발을 붙여대면서 감히 우리 민족을 멸살할 흉계를 로프적으로 드러낸 양키미치광이들에게 내린 수처스러운 과격의 준엄한 선고장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결전의 시각을 일일천추로 고대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최후공격전으로 부르는 가슴추련한 신로총성이다.

돌이켜보면 15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펼쳐온 미제는 참혹한 전쟁으로 신성한 조국땅을 피바다, 불바다 속에 잠겼으며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세기와 세기를 이어 가장 야만적인 제제와 횡포한 군사적침략행동을 광분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해야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게했다.

우리 조국의 삼천리강토 그 어디에나 미제수탈자들의 죄악의 역사가 새겨져있으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 인민앞에 최악의 최악만을 덧씌운 송냥이 미제의 피수 트럼프놈이 얼마전 그 무슨 《화염과 분노》에 대해 웨치면서 뽐내고 이면에는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망발을 광분연히 떠벌이고있으니 짐승보다 못한 이런 천하의 악한놈을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오늘의 시대는 트럼프와 같은 정신병자, 침략의 무리들을 행성우에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이 땅의 정의와 자주, 평화도,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있을수 없으며 우리가 선택하고 뜻이 이어온 선군의 길, 명진의 길이 천만년 정당하다는것을 다시 한번 특별히 보여주고있다.

수령보위, 조국보위, 혁명보위를 성스러운 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인민군대는 공화국을 달살하려는 미제의 광기어린 도발을 절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정의의 붉은칼로 인류의 악성종양 미국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도려내자, 바로 이것이 멸적의 보복의지를 단장약한 우리 천만장병들이 터뜨리는 분노의 웨침이다.

우리의 전투에는 강철의 명장, 민족의 영웅, 천출위인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핵무기를 다 합친것보다 더 위력한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으며 제힘으로 개발하여 배비한 최강의 타격수단들과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주체적인 전법이 있다.

남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해 세기를 두고 준비해온 우리 식의 타격전은 일단 개시되면 가장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보복전의 위력을 발휘하여 미제군을 찍을 놈도, 비명을 지를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때까지, 미제국주의를 이 행성에서 영영 없애버릴 때까지 중단없이 벌여질것이다.

연설자는 미제의 피수 트럼프가 감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완전파괴》는 전대미문의 호전적망발을 내뿜으며 력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로 해온 이상 우리 인민군대는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태세로 그 값을 천백배로 받아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전제 인민군장병들이 천만대적

이 통제로 덤벼들고 지구가 열백번 깨어진 다 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고 천집단집의 천연오새, 무식방면력이 되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결사보위합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작전과 전투를 철두철미 수행수준, 수령보위전으로 일관시키고 우리의 최고전업을 해치려는 적들의 천하 무도한 모략행동을 그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는 즉시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군지휘를 총괄하게 하는데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전군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즉시에 접수하고 즉시에 집행하며 즉시에 보고하는 혁명적명령준행과 공포, 칼날같은 기강을 더욱 철저히 세우는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높이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싸움준비를 완벽하게 갖추며 전군을 남강도 미제와의 결전사전에 령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전군의 장병들은 적들의 침략전도발행통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원수들이 우리 국가의 신성한 령토와 명해, 명공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기려 한다면 세상이 알지 못해도 우리는 우리 식의 무자비한 선제 타격으로 놈들을 재가무도 남지 않게 모조리 쓸어버리고 남조선에 깔고 앉아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빛나게 이룩하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이제 세계는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강대국에 지나지 않는 트럼프놈을 대동령자리에 앉힌 미국이 어떻게 비극적 종말을 고하는가를 특별히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자는 전제 인민군장병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의 극악무도한 도발행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대업, 반미결사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주기 위하여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총돌격, 총대진해나갈때 대하여 강조했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북군상장 조남진은 지금 전군의 천만장병들의 가슴가슴은 활화산처럼 치솟는 멸적의 정병의지와 당중앙의 령도따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올 불같은 맹세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제제책동과 군사적압박을 가하다못해 오늘도 감히 우리 공화국의 《절멸》나발까지 붙여낸 정신병자들의 망태를 우리 혁명무력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말했다.

무적필승의 혁명장군의 무자비한 타격상을 침략자들이 살아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 혁명적 무장력의 정의의 보복성전개시는 이제 시간문제이며 미제에게 차레질것은 시제와 죽음, 종국적멸망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는 당의 조국통일전군명령이 내려진 전군을 반미결전사전에 산악같이 불러일으켜 조국통일대업을 기어이 성취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승리의

열병광장에 높이 모시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북군총장 강순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 접한 인민군장병들의 가슴가슴은 반미대결전에 힘있게 떨치나 천추에 사무친 민족의 원한을 풀고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야할 불복의 맹세로 용감마냥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무량히 짓밟고 전대미문의 민족멸살까지 노리고있는 남강도무리들을 우리 혁명무력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남은것은 세상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치절하고 무자비한 복수와 무시무시한 징벌뿐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당의 대사변 개시명령만 기다리고있는 천만장병들의 신심과 용기는 백배하며 침략과 전쟁의 원수인 미제와 그 주구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해버리려는 전투적열광과 혁명적기세를 하늘을 찌를듯 높다고 말했다.

토론자는 우리 혁명무력이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의 권위를 어떻게 보위하고 최고사령관의 결심을 어떻게 실천할하며 목숨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어떻게 지키는가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군상장 박정천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불멸의 기상에 걸맞게 사상최대의 제제압살망동과 침략 전쟁행위를 무려대던 미제의 강대피수가 우리 국가를 《완전파괴》시키겠다고 떠벌린 천인공도할 꾀변은 멸적의 강철포신들을

무섭게 달구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놈의 망발은 역사의 모진 돌속에서도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눈부신 현실앞에 초보적인 관념마저 잃어버린 정신병적인 망태이며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규탄하였다.

미제가 무엄하게도 우리 운명과 미래의 전부인 혁명의 수뇌부에 도전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을 모독하는데 대하여 가장 치절할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주체포병의 무자비한 타격앞에서 반드시 종국적멸망을 고하고야말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미제와 괴뢰역적파당을 조준경안에 뽐내 걸어놓고있는 일당백포병들은 일단 명령만 내려면 포탄마더에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과 천만군민의 분노를 단장약하고 즉시적이고 련속적인 불바람으로 적진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토론자는 침략자, 도발자들을 이 땅에서 마지막 한놈까지 철저히 소멸해버릴 때까지 영웅적조선인민군 포병들은 섬멸의 포성을 순간도 멈추지 않을것이며 세상이 보란듯이 조국통일대전승리의 총모를 반드시 쏘아올리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하였다.

집회는 《수령이시여 명명만 내리시라》 노래주요곡으로 끝났다.

인민무력성 군인집회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혁명의 붉은 총창으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졸개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남조선에 단숨에 깔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의 필승불패의 기상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자나깨나 뉘고싶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을 맞으며 사회주의조국을 방랑하였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애국애족의 천만리를 억 세계 걸어갈 신념의 맹세를 담아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필승불패성이 세계만방에 높이 떨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에 안겨 뜻깊은 9월의 명절을 조국인민들과 함께 경축한다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 조국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원수님에게 불러주시고 숙식조건과 체류일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국방문의 매일 메시가 남다른 특권과 특혜를 받으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역사를 영원히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각별한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깊이 절감하였습니다.

뜻깊은 9월의 날날 우리 공화국은 최대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반공화국제압살행동을 단호히 처각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불패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창건절을 앞두고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불가항력적인 다스림을 누리며 떨치시어 우리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빼앗고려는 원수들의 머리에 무서운 철수를 내리시고 9월

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우리의 랑공색 공화국기가 더욱 높이 휘날리게 하셨습니다.

세계를 진감시킨 대륙간판도록에정착을 수순완성의 대성공과 9월의 명절을 더욱 뜻깊게 빛내신 군민정국대회를 통하여 저희들은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온몸으로 절감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의 진리를 더욱 심장깊이 새기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국방문의 날날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전구들마다에서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 자력자강의 영웅신화들을 기쁘게 목격하면서 오직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꽃피워나가는 조국인민들의 역센 지향과 의지를 꺾을 《제제》와 봉쇄는 이 세상에 없으며 사회주의강국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야할것이라는 신심과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습니다.

함으로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공화국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김정은원수님에게 영연토록 무궁번영할것입니다.

저희들은 조국방문의 날날에 받아오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양식을 한성토록 간직하고 그 어떤 천지공과가 닦쳐와도 오직 한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를것이며 전세위인들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가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재일본조선인운동의 역사를 세세년년 영원히 애국충정의 년대기로 수놓아가겠습니다.

주제 106(2017)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성원일동 올립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성명

선군조선의 승리의 상징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의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미합중국 대통령이 유엔무대에서 전대미문의 미지판이나발을 붙여대고 관련하여 21일 미국과 온 세계를 향하여 역사적인 성명을 발표하시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우리 나라를 《완전파괴》하겠다는 력대 가장 포악한 트럼프의 선전포고에 대하여 단호한 초강경대응의지를 발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을 담아 진폭적으로 지지한다.

전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유엔총회라는 자리에서 오만부레하게 감히 우리의 최고령도자를 모욕하고 공화국을 완전히 괴멸하겠다는 도저히 용납 못할 반인륜적인 망발을 내뿜은 트럼프의 정신병적인 망태에 이가 걸리고 치가 떨려 분노가 치밀어오르고있다.

하기에 지금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트럼프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강대, 놀다라미치광이라고 딱인격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꾀한 미국주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반드시 받아낼것이라고 명백히 선언하시였으니 진정 천지천후 미제에 주체의 철수를 무자비하게 내리시고 단호히 답대기신 백두산천출위인의 불패의 기상과 무비의 담력, 인류사에 유례없는 정의의지에 복받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막대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세계도처에서 공갈과 위협, 제도전복과 인권유린의 당나귀짓을 다하고있는 미국에 대국들조차 반대의견 하나 특별히 내지 못하고 유엔마저도 자기 사명을 내던져버린 속에서 미국이 상상도 못하는 초강경의 단호한 조치로 맞서는 절세의 위인은 이 세상 다 들춰봐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밖에 안 계신다는 한없는 민족적격지와 영광으로 하여 가슴가슴이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우리가 반미전대결전의 최후승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결코 우리 나라가 수순러니 대륙간판도록에 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강철의 선군명장이시며 최대의 정치대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투에 우리들을 세계최강의 군사강국, 자력자강의 백두산대륙으로 내세우시어 오로지 승리의 한길로 끝까지 인도해주시기때문이다.

재일동포들을 두어온 정을 안고 사는 하나의 혈육으로 한몸에 안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해외동포조직인 총련을 귀중히 여기고 백발으로 보호하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존엄을 삶과 맑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주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스승이시다.

우리들은 그 어떤 천지공과가 뒤를이쳐도 조국과 더불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어머니조국을 끝까지 보위할것이다.

전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미국이 우리에게 무릎을 굽힐 력사의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으며 주체조선과 총련애국취업의 승리는 과학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승승장구하는 조국과 더불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총련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갈것이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미국에 발발는 추종국 일본에서 그 어떤 모진 칼날이 붙어오든 대로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서 오가는 따뜻한 정성과 총련의 힘이 있고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필승의 보검으로 더 높이 추켜들고 나라의 민족의 존엄과 명예, 재일동포들의 삶과 사랑하는 후대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승리의 그날까지 정의의 투쟁을 더 역세게, 더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주제106(2017)년 9월 22일
일본 도쿄

천만의 심장이 분노로 끓는다, 악의 화근인 미제를 이 행성우에서 영영 쓸어버리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 접한 각계의 반향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불량배의 광대를 천백배로 결산하리

미제 승양우리의 광대 두목인 트럼프가 유엔총회 제 72차회의 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완전과피》라는 천인공노할 궤변을 펼쳤다는 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경악시키고있다. 력대 미국에서 대통령명칭거지를 쓰고 있는 놈들이 많았지만 이처럼 유엔무대에서 공공연히 한 주권국가에 완전히 피멸시키겠다는 목언을 꺼리없이 쏟아놓는 놈은 일찍이 없었다. 그대도 명성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런 망발을 께쳐낼수 있는가. 이것은 혁무기와 함께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핵전쟁위협공물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위대한 수단을 가지게 된 우리 공화국의 특대사변에 접친한 미국의 늑대늑패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세가 아무리 엄중하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당의 두 대와 인민의 일치단결이 있고 가장 정당한 당의 방침이 있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절망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미국정권의 망발을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기게 되는 진리가 있다. 허리띠를 조여매면서 병진의 길을 잘못이 걸어온것이 천만번 정당하며 이 길만이 조국의 안전과 우리

혁명의 권리를 지키고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 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세계연에서 국가의 존제자세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모욕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백두의 담력과 의지를 지니고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을 전투에서 안아온 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그이께서는 한 우리에게는 두려울것도 무서울것도 없다. 수령계사용위정신으로 만장약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발소리만 제쳐내며 눈다리에다 백두산혁명군들의 불타뜻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꾀한 미국국수

권자의 망발을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입에서 뱀이 나오는지 구멍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무모한 도발로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뿔고 미쳐날뛰는 늑대늑패를 철대로 살려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라. 우리는 미치광이 트럼프를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불량당질할 것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자기의 승고한 이상을 향해 폭풍쳐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역센 기상을 꺾을자는 이상상에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철명정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신다. 그이께서는 한 우리에게는 두려울것도 무서울것도 없다. 수령계사용위정신으로 만장약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발소리만 제쳐내며 눈다리에다 백두산혁명군들의 불타뜻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꾀한 미국국수

최후는 분격을 금할수 없다. 조선인민앞에 천추에 썩지 못할 대역죄를 지은자가 유엔무대에서 감히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절멸을 부르짖었으니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자각도 상실한 불량나니, 광대임을 드러낸다. 미친 불량배의 악담은 미제가 세계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악의 권, 인두갑을 쓴 미친개투리임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각의 전제 일꾼들과 정부원들은 미국의 늑대늑패가 정치선명적인 광대를 부리며 천인공노할 망발을 끌어낸 것을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낼 명철의 입념으로 심장의 피를 용암처럼 펄럭 끓이고있다.

집력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짖어대는 법이지만 정도를 초월해서 짖어대 때에는 사정없이 못대다 쓰러야 한다. 아니 아예 죽발을 쳐서 다부르짖었으니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자각도 상실한 불량나니, 광대임을 드러낸다. 미친 불량배의 악담은 미제가 세계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악의 권, 인두갑을 쓴 미친개투리임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각의 전제 일꾼들과 정부원들은 미국의 늑대늑패가 정치선명적인 광대를 부리며 천인공노할 망발을 끌어낸 것을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낼 명철의 입념으로 심장의 피를 용암처럼 펄럭 끓이고있다.

미국은 늑대늑패가 천추에 썩지 못할 대역죄를 지은자가 유엔무대에서 감히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절멸을 부르짖었으니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자각도 상실한 불량나니, 광대임을 드러낸다. 미친 불량배의 악담은 미제가 세계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악의 권, 인두갑을 쓴 미친개투리임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각의 전제 일꾼들과 정부원들은 미국의 늑대늑패가 정치선명적인 광대를 부리며 천인공노할 망발을 끌어낸 것을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낼 명철의 입념으로 심장의 피를 용암처럼 펄럭 끓이고있다.

800만 총폭탄은 명령만 기다린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는 되는 미치광이 트럼프의 망발에 지금 선군조선의 수백만 청소년들은 피어나는 격분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다. 정발이 가 갈리고 치솟는 분노로 가슴이 뛰다. 세계 최대의 공식교무대인 유엔총회에서 한개 주권국가의 《완전과피》라는 천대늑패의 목언을 께쳐내 늑대늑패가 트럼프야말로 불량관을 즐기는

불량나니, 광대임을 드러낸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꾀한 미국국수권자의 망발을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입에서 뱀이 나오는지 구멍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무모한 도발로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뿔고 미쳐날뛰는 늑대늑패를 철대로 살려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라. 우리는 미치광이 트럼프를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불량당질할 것이다.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자기의 승고한 이상을 향해 폭풍쳐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역센 기상을 꺾을자는 이상상에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철명정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세는 아무리 엄중하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당의 두 대와 인민의 일치단결이 있고 가장 정당한 당의 방침이 있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절망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미국정권의 망발을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기게 되는 진리가 있다. 허리띠를 조여매면서 병진의 길을 잘못이 걸어온것이 천만번 정당하며 이 길만이 조국의 안전과 우리

혁명의 권리를 지키고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는 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세계연에서 국가의 존제자세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모욕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백두의 담력과 의지를 지니고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을 전투에서 안아온 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그이께서는 한 우리에게는 두려울것도 무서울것도 없다. 수령계사용위정신으로 만장약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발소리만 제쳐내며 눈다리에다 백두산혁명군들의 불타뜻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꾀한 미국국수

이 미쳤어 놓는 불이다. 트럼프가 우리 국가의 《완전과피》내용을 일관된 연설을 마치고 유엔총회연단을 내려던 그 순간에 미국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없이 푸른 내 조국의 하늘,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악의 권, 인두갑을 쓴 미친개투리임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각의 전제 일꾼들과 정부원들은 미국의 늑대늑패가 정치선명적인 광대를 부리며 천인공노할 망발을 끌어낸 것을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낼 명철의 입념으로 심장의 피를 용암처럼 펄럭 끓이고있다.

절멸은 피할수 없는 미국의 운명

이 미쳤어 놓는 불이다. 트럼프가 우리 국가의 《완전과피》내용을 일관된 연설을 마치고 유엔총회연단을 내려던 그 순간에 미국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없이 푸른 내 조국의 하늘,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악의 권, 인두갑을 쓴 미친개투리임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각의 전제 일꾼들과 정부원들은 미국의 늑대늑패가 정치선명적인 광대를 부리며 천인공노할 망발을 끌어낸 것을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낼 명철의 입념으로 심장의 피를 용암처럼 펄럭 끓이고있다.

미국은 늑대늑패가 천추에 썩지 못할 대역죄를 지은자가 유엔무대에서 감히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절멸을 부르짖었으니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자각도 상실한 불량나니, 광대임을 드러낸다. 미친 불량배의 악담은 미제가 세계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악의 권, 인두갑을 쓴 미친개투리임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각의 전제 일꾼들과 정부원들은 미국의 늑대늑패가 정치선명적인 광대를 부리며 천인공노할 망발을 끌어낸 것을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낼 명철의 입념으로 심장의 피를 용암처럼 펄럭 끓이고있다.

미국은 늑대늑패가 천추에 썩지 못할 대역죄를 지은자가 유엔무대에서 감히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절멸을 부르짖었으니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자각도 상실한 불량나니, 광대임을 드러낸다. 미친 불량배의 악담은 미제가 세계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악의 권, 인두갑을 쓴 미친개투리임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각의 전제 일꾼들과 정부원들은 미국의 늑대늑패가 정치선명적인 광대를 부리며 천인공노할 망발을 끌어낸 것을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낼 명철의 입념으로 심장의 피를 용암처럼 펄럭 끓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과정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 접한 우리 국가과학원의 전제 과학자들은 당의 폭풍에서 키위는 지혜와 슬기, 재능을 다 바쳐 천인공노할 궤변을 내뿜는 광대두목 트럼프와 그 궤기리들을 모조리 정벌할 불타는 적개심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새길들이 우리 민족을 피뎀쳐온 미제이다. 그런데 미국

이러는 악의 세력의 수장인 트럼프가 천대늑패의 고립과 압살, 체제와 봉쇄책도 모자라 우리 민족을 총포로 절멸하겠다고까지 거리없이 께쳐냈으니 우리 어찌 미국이라는 백년수적 을 더 이상 용서할수 있겠는가.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번발적으로 이룩해나가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벌려나간 과학자들이 정상사람마저 사라져버리고 침착성을 잃게 하는 정신병적인 광대앞에 분노의 치를 떨면서 광대두목 트럼프와 그 궤기리들을 모조리 정벌하겠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불량관을 즐기는 불량나니이며 광대두목인 트럼프에게 따라가라시기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파대망상적, 정신착란적에 걸려있다. 미라교라스는 아마도 트럼프처럼 진방지고 불쌍시하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잘못은 알라 천지를 뒤엎고 그런 격언을 미리 만들어놓은 놈이다. 광대두목 트럼프는 옛 수확자의 의미미장한 격언을 미쳐 음미해볼 사이도 없이 지옥의 나라들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미더운 국방과학진수치면 우리 국가과학원의 전제 과학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앞으로만 나아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세는 아무리 엄중하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당의 두 대와 인민의 일치단결이 있고 가장 정당한 당의 방침이 있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절망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미국정권의 망발을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새기게 되는 진리가 있다. 허리띠를 조여매면서 병진의 길을 잘못이 걸어온것이 천만번 정당하며 이 길만이 조국의 안전과 우리

제10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선수들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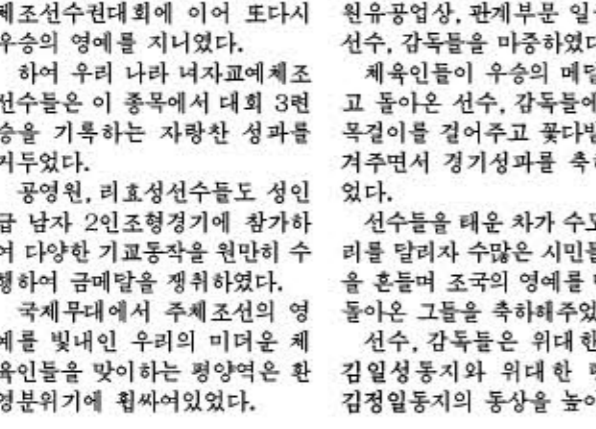
제10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 선수들이 22일 귀국하였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지역 우승한 남녀 선수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정교, 면술예선수들은 성인급 여자 2인조경기에서 평형이 뛰어난 육체기술능력을 높이 발휘하여 제9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 이어 또다시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다. 하여 우리 나라 여자교예체조선수들은 이 종목에서 대회 3연승을 기록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 평형전, 리프팅전에서도 성인급 남자 2인조경기에 참가하여 다양한 기교동작을 원만히 수행하여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주체조선의 영예를 빛내인 우리의 미더운 체육인들을 맞이하는 평양역은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제10차 아시아교예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라는 구호만이 평양역구내에 세워져있었다. 평양역에서 진행된 가운데 열차가 도착하자 운동들이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평양역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형태동지와 리일한 당중앙위원회 부장, 전광호 내각총리, 김일국 체육상, 교예체조선위원장 고건선 원수룡동지, 관계부서 일꾼들이 선수, 감독들을 마중하였다. 체육인들이 우승의 메달을 안고 돌아온 선수,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선수들을 태운 차가 수도의 거리로 달려가 수많은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그들을 축하해주었다. 선수, 감독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형태동지의 통상을 높이 모신

를 전정하고 참가 인사들 올렸었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당의 위용찬양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힘차게 벌였으므로 국제경기들에서 탐욕적공화국기를 높이 올림, 타자랑차게 허탈 령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우 리 교 예 배 우 들 《이들-2017》 세계교예예술축전에서 최고상들 쟁취

《이들-2017》세계교예예술축전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모스크바의 모스코바에서 진행되었다.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도이힐란드, 로씨야, 몽골, 중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 13개 나라에서 140여명의 이름있는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17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교예배우, 와우드체육단, 국가과학원장 장철



제20차 래온도세계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그린랜드, 뉴질랜드, 단마르, 로씨야, 미야르, 몽골, 방글라데시, 스페인, 체코, 캄보디아, 자카르타, 아일랜드, 오스트랄리아, 에스토니아, 웨일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선수단, 대표단들이 22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역에서는 평양역에서 평양역에 도착한 선수단, 대표단들이 22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역에서는 평양역에 도착한 선수단, 대표단들이 22일 비행기와 열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